

작년 석면피해구제 광주 7명·전남 10명

제도시행 첫 해, 건강피해자·유족 등 전국 총 459명 인정

60대 이상 71% 차지… 질병비율은 악성중피종 가장 많아



지난해 첫 도입된 석면피해구제제도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17명이 석면 피해자 및 유족으로 인정됐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지난 1970년대 이후 광주·전남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건축자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된 바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전남지역에서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와 유족으로 각각 7명과 10명 등 모두 17명이 인정받았다. 광주에서는 석면 피해를 인정받은 2명 중 1명은 악성중피종(장마에 생기는 종양), 다른 1명은 3급 석면폐증이, 특별유족으로 인정받은 5명의 가족은 모두 악성중피종이 발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남의 석면 피해자 2명 모두 악성중피종이, 유족 8명의 가족 중 7명은 악성중피종, 1명은 폐암이 발병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최근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 첫 해인 2011년 모두 459명의 건강피해자 및 유족이 석면피해를 인정받아 구제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2010년 3월 22일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했으며,

2011년 1월 1일부터 세계 6번째로 석면피해 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석면피해구제기금의 규모는 2011년 139억원, 2012년 145억 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석면피해자 요양급여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항목의 본인부담액 전액을 지원하며, 요양생활수당의 경우 2인 가구 기준 최대 매달 91만원 수준, 유족에게는 최대 3300만원이 지급된다.

석면피해구제제도는 기업의 법정분담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해 해당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석면피해구제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프랑스(2002), 일본(2006), 네덜란드(2007). 벨

기(2007), 영국(2008) 등이 있다.

2011년도 석면피해구제제도에 전국적으로 모두 668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심사를 거쳐 459명이 석면 피해를 인정받았다. 이 중 249명이 석면피해자로, 210명은 피해자 사후 유족이 인정을 받는 특별유족으로 인정받았다.

석면피해 인정자는 남자 334명, 여자 125명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많으며 60대 이후 연령대가 326명으로 전체의 71.0%를 차지했다. 질병별 인정비율은 악성중피종이 279명(60.8%), 석면폐증이 158명(34.4%), 폐암이 22명(4.8%)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석면피해 인정자는 충청남도(34.0%), 경기도(17.4%), 서울시(14.8%)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1년 제도 운영 결과와 더불어 석면피해자 간담

회 개최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2012년에는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석면 피해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요양생활수당 지급절차, 직계가족의 대리 신청절차, 동일순위 유족의 위임서식, 기타 구비서류 등을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 하반기에는 구제대상 석면 질병의 확대와 구제급여 지급의 현실화를 위한 법률개정 등 제도개선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광주지역 공공건물 15개 시설 676개 지점을 대상으로 석면함유 자재를 분석한 결과 14개 시설 225개 지점에서 석면자재가 검출된 바 있다.

석면은 WHO(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지난 1972년부터 새미울운동의 일환으로 지붕개량사업을 하면서 석면슬레이트 지붕재를 대량 사용했고 천장재, 자동차 브레이크라이닝, 단열재 등으로도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베이징 스모그' 한반도 하늘 불안

최근 전국서 중국 미세먼지 여러차례 관측

최근 서해를 건너 날아온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상공을 뒤덮는 일이 잦아졌다. 중국에서 사회문제로까지 번진 '베이징 스모그'가 한반도에 상륙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PM-10(입자 크기가 10μm 이하인 미세먼지)을 기준으로 지난 18일 오전 10시 서울의 한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00μg/m³를 넘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후 5시 156μg/m³로 정점을 찍고서 이튿날 오전 4시 92μg/m³로 떨어질 때까지 18시간 동안 100μg/m³를 웃돌았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 기준치는 24시간 평균 100μg/m³, 연간 평균 50μg/m³ 이하다. 서울의 최근 10년간 1월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59μg/m³. 이보다 9일 전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비슷하게 올라갔다. 지난 9일 오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18시간 동안 100μg/m³를 넘어서고 한때 147μg/m³까지 치솟았다.

기상청은 최근 전국적으로 여러 차례 관측된 고농도의 미세먼지 가운데 상당부분이 중국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인 것으로 보고 있다. 비슷한 시기 황사가 발원한 적이 없는 반면 중국 동쪽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때문으로 추정되는 연무가 관측됐기 때문이다.

최근 농도가 절어질 당시 미세먼지 입자들은 대부분 크기가 지름 1μm 안팎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이를 미세먼지가 지름 2~6μm인 황사 먼지보다 크기가 작은 대기오염물질일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한반도 주변의 기압 배치와 기류의 특성이 중국 하늘에 떠 있는 미세먼지를 실어나르는 데 좋은 조건을 형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겨울 규모가 큰 고기압이 중국 대륙에 정체되며 미세먼지를 많이 머금었고 이 공기가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건너왔다"며 "바람이 약하면 미세먼지가 더 오래 머물면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이 협정에 따라 환경 보호 및 전연

영산강 유역 환경시설 규정위반 70% 급증

지난해 964곳 중 83곳 적발

지난해 영산강 유역 환경시설의 규정 위반 건수가 7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영산강 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수·분뇨·폐수 종말처리시설 964곳을 점검한 결과 83곳이 법적 기준을 위반해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적발 건수는 전체의 8.6%로 전년도(49건)보다 69.4% 늘었다. 유형별로는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62건, 수질 원격 감시시스템 정확도 부적합이 21건이었다.

위반건수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부터 소행 마을 하수도가 포함되면서 접점대상 시설 수가 늘었고 처음 시행된 생태 복성제도에 대한 적응도 덜 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영광·강진 등 8개 지역에서 5차례 이상 적발됐다. 순천, 여수, 진도 등 7개 시·군은 1건만 적발됐다.

특히 지역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의 위반율이 13.1%로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시설(4.0%)보다 크게 높아 지역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영산강 환경청은 지적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한·미 환경협정 체결 위원회 구성 1년내 첫 회의

한국과 미국은 지난 23일(현지시간) 환경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미 환경협력협정(ECA, Environmental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했다.

양국은 이날 오전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한덕수 주미대사와 로버트 호액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이 각각 대표로 참석해 이 협정에 대한 서명식을 가졌다.

양국은 이 협정에 따라 환경 보호 및 전연

자원 관리를 위한 법규를 개발하고, 다자간 환경협정을 이행하며 생태계보호, 불법벌목 방지, 대기·수질오염과 폐기물 감축, 친환경 생산 기술 개발, 청정에너지 개발 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양국은 이를 위해 환경협력위원회를 구성해 각 분야 활동 상황을 검토 평가하며, 협정이 발효된 후 1년 이내에 첫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굶주린 독수리 구조

먹이를 먹지 못 해 텔진한 독수리 1마리가 지난 21일 경남 고성군 고성읍을 기울리 들녁에서 구조되고 있다.

몽골 등 아시아 내륙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1000여km 이상을 날아온 독수리들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나타나 현재 고성군 일대에 300여마리가 관찰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번호사회관 옆 건물)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전북부인 대표이사 010-7570-7525

▶ 대지 1491평 ▶ 건물 562평

▶ 경정가 11억7천

▶ 매매가격 7억2천(협의후결정)

▶ 용산동(하미스포렉스) 대표이사 010-7570-7525

▶ 대지 4076평 ▶ 건물 12943평

▶ 경정가 516억7천

▶ 매매가격 160억(시설비별도)

▶ 대지 1181평850 ▶ 건물 3194평

▶ 경정가 31억5천

▶ 최저가 17억5천

▶ 대지 995m² ▶ 건물 2577m²

▶ 경정가 29억3천

▶ 최저가 31억5천

▶ 대지 985m² ▶ 건물 23177m²

▶ 경정가 41억5천

▶ 최저가 23억4천

▶ 대지 9293m² ▶ 건물 5858m²

▶ 경정가 74억8천

▶ 최저가 53억8천

▶ 대지 51503m² ▶ 건물 27399m²

▶ 경정가 112억6천

▶ 최저가 13억4천

▶ 대지 547m² ▶ 건물 1734m²

▶ 경정가 13억4천

▶ 최저가 6억

▶ 대지 32840m² ▶ 건물 18979m²

▶ 경정가 187억6천

▶ 최저가 53억8천

▶ 대지 3026m² ▶ 건물 25984m²

▶ 경정가 69억3천

▶ 최저가 33억8천

▶ 대지 1570m² ▶ 건물 24742m²

▶ 경정가 76억8천

▶ 최저가 39억8천

▶ 대지 15428m² ▶ 건물 24628m²

▶ 경정가 41억8천

▶ 최저가 31억9천

▶ 대지 15107m² ▶ 건물 24742m²

▶ 경정가 71억8천

▶ 최저가 57억8천

▶ 대지 15107m² ▶ 건물 24742m²

▶ 경정가 71억8천

▶ 최저가 57억8천

▶ 대지 15107m² ▶ 건물 24742m²

▶ 경정가 71억8천

▶ 최저가 57억8천